

연예

12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서지석, 강지환 대신 '조선생존기' 합류



서지석

연기자 서지석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 대신 T V조선 주말드라마 '조선생존기'에 합류한다. 15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서지석은 강지환이 하차한 '조선생존기' 출연을 확정했다. '조선생존기'는 강지환이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되면서 촬영을 중단했다. 강지환은 9일 밤 10시5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TS, 10월26일부터 서울 콘서트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서울 공연을 끝으로 한국 가수 최초로 펼쳐온 세계 스타디움 투어의 막을 내린다. (2019년 스포츠동아 7월 9일 단독보도) 방탄소년단은 15일 공식 홈페이지와 팬 커뮤니티 및 팬 카페, SNS 등을 통해 관련 일정을 공개했다. 이들은 10월26일과 27일, 29일 3일 동안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를 연다.

이휘재, 매니저 돌잔치 비용 지불 훈훈



이휘재

방송인 이휘재가 20년지기 매니저의 결혼식과 돌잔치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등 의리를 과시해 눈길을 모은다. 이휘재는 2015년 매니저 A씨의 결혼식은 물론 최근 그의 자녀 돌잔치 비용을 책임졌다. A씨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휘재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앞서 이휘재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A씨와 나눴은 우정을 언급한 바 있다. 이휘재는 KBS 2TV '배틀 트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창 남북평화영화제 내달 16일 개막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8월16일부터 5일 동안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 평창알펜시아리조트, 강릉 등에서 열린다. '선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 평화로'를 주제로 한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15일 개막작 등 33개국 85편의 상영작을 발표했다. 개막작은 1992년작 '새'다. 일본이 1억 원의 제작비 투자하고 북한 스태프와 배우들이 참여해 조류학자 원흥구·병오 박사 부자의 실화를 담았다. 영화제는 북한영화 '봄날의 눈서리', 남북합작 애니메이션인 2005년작 '왕후 심청', '쉬리', '공작' 등을 상영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24일 개봉 '나랏말싸미'서 세종대왕으로 변신한 송강호

“세종대왕의 고뇌와 아픔 보여줄 것”



“세종 이미지 재창조…배우의 의무 먼저 떠나버린 전미선 작잡함 느껴”

세종대왕과 만난 배우 송강호가 또 한번 진가를 발휘한다.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위인의 빛나는 업적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에 따르는 극심한 부담과 책임감을 온전히 이겨낸 그는 미처 몰랐던 위대한 왕의 이면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24일 개봉하는 영화 '나랏말싸미'(제작 영화사 두둥)가 15일 오후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첫 시사회를 열고 베일을 벗었다. '엑시트' '봉오동 전투' '사자' 등이 대기 중인 여름 극장이 흥행 대전의 포문을 여는 작품으로, 송강호라는 이름값, 30년간 영화 기획자이자 '사도' 등 시나리오 작가로 명성을 쌓은 조철현 감독의 저력이 만나 '명품'의 탄생을 예고했다.

영화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얽힌 이야기다. 어려움을 겪던 세종(송강호)이 소헌왕후(고 전미선)의 제안으로 팔만대장경 등 불교 경전과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한 신미 스님(박해일)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소리와 말을 근간으로 글을 만드는 과정을 깊이 파

고드는 영화는 진지하면서도 집요하다. 제작진은 “다양한 훈민정음 창제설 가운데 하나를 옮겼다”고 밝혔다.

물론 알려진 인물과 이야기란 사실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수없이 극화된 세종을 연기한 송강호는 “여러 과정을 통해 차곡차곡 쌓인 세종의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그걸 깨트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배우의 의무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강호의 세종은 새로운 면서도 따뜻하다. 송강호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왕의 고뇌와 어려움을 담은 작품은 처음”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특별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력 암투 등 익숙한 사극과도 다른 길을 걷는다. 유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백성에게 필요하다면 승려와도 손을 잡는 '합리주의자'로서 왕, 그를 인도하는 '대범한 키페이커' 왕비까지 등장인물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이상적이다. 조철현 감독은 “왕이 되는 과정을 겪으며 세종은 인간적으로 빛이 많고 상처가 깊어진 사람 같다”고 말했다.

'나랏말싸미'는 6월29일 세상을 떠난 고 전미선의 유작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영화에는 훈민정음 반포를 앞두고 눈을 감은 소헌왕후를 기리는 진혼제 장면이 나온다. 고인의 상황과 겹칠 수밖에 없다. 송강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작잡함을 느낀다”며 “이 영화의 슬픈 운명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배우 송강호가 영화 '나랏말싸미'로 여름 극장이 흥행 대전의 포문을 연다. 그는 15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시사회에 참석해 “세종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배우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입 텐 병무청 “스티브 유는 외국인…입국 어려울 것”

〈유승준〉

정성득 부대변인 라디오서 발언 “병역의무 저버리면서 국적 삭제”

“스티브 유! 어떤 형태로든 입국하기 어렵다.”

11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병무청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자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주 LA 한국 총영사관이 다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으면 또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소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



유승준

을 받고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 유는 당시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돼 병역을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외에 잠깐 출국했다 그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서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시민권을 취득해 외국인이 되어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마디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유승준을)스티브 유 혹은 외국인 스티브 유'라 부른다”고 말했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을 두고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라며 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2002년 당시 유승준의 행위가 ‘병무청이 보기에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봤느냐’는 질문에 그는 “인기가 수였으니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날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엇비슷한 사례에 적극 대응기로 했음을 시사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몸집 키우는 오디션 프로그램 “이젠 세계로”

프로듀스 X, 곧바로 해외 진출 노크 9월 방송 ‘월드클래스’ 과정 차별화

아이돌 오디션프로그램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케이팝 열풍이 시작된 후 비슷한 포맷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시청자 피로감이 높아지고, 더 이상 시선을 끌만한 점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하자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돌 오디션프로그램의 선봉에 섰던 케이틀채널 엠넷은 하반기 2편을 선보인다. 현재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오디션프로

그램 ‘프로듀스 X’도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배출이 최종 목표다. 국내 아이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케이팝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에서 제작 단계부터 미국 빌보드를 목표로 삼았다. 제목의 ‘X’도 글로벌 무대를 위한 ‘확장’(Extension)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최종 10위권 10명의 연습생과 누적 득표수를 합산해 최고점을 얻은 1명을 더해 총 11명이 세계무대에 나선다. 제작진은 “국내에서 출발해 곧바로 해외시장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방송 예정인 ‘월드클래스’(World Klass)는 제목에서부터 “세계화”를 표방한다. ‘클래스’의 ‘K’는 케이팝의 의미

로, “월드클래스가 되겠다”는 포부를 제목에 담았다.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선발 과정부터 다르게 진행했다. 서울,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에서 최정예 연습생 20명을 선발했고, 이들 가운데 곧장 세계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최종 10명을 뽑는다. 그룹 이름까지 일찌감치 정했다. ‘동양에서 온 10명의 소년들’ ‘서양 음악에 동양의 가치관을 담아낸다’는 뜻(Ten Oriented Orchestra)의 약자인 ‘투(TOO)’이다.

8월 말 방송하는 ‘퀸덤’은 최정상 걸그룹을 목표로 한다. 국내 인기 걸그룹 6개 팀이 정면승부를 펼쳐 ‘퀸 오브 퀸’을 뽑는다. 최종 선발된 걸그룹에게는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채널A〉

시간 당긴 ‘도시어부’ 시청률 2배↑ 효과 짱

예능프로그램 ‘전진 편성’ 대세로

각 방송사들이 일부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앞당겨 시청률 상승효과를 보면서 다른 예능프로그램도 편성시간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채널A ‘도시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기존보다 1시간가량 앞당겨 목요일 밤 9시50분에 방송 중이다. 편성 이동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평소 2%대(이하 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나타내다 시간대를 앞당긴 후 4%를 넘어섰고, 11일에는 4.7%까지 치솟았다. 채널A 관계자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을 고려해 편성 시간을 앞당긴 점이 시청률 상승에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도 마찬가지다. 당초 수요일 밤 11시대에 방송했지만 4월부터 월요일 오후 8시55분으로 이동했다. 덕분에 2%대에 머물던 시청률은 최근 4%대를 여유롭게 웃돌고 있다. SBS ‘골목식당’ 등이 포진한 수요일 ‘예능 경쟁’에서 벗어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청하기 좋은 프로그램의 콘셉트도 시너지 효과를 냈다. 연출자 김진 PD는 “시간대를 앞당겨 달라는 부모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효과다”고 말했다.

SBS의 ‘동상이몽2’도 최근 3주간 밤 10시부터 2시간 확대 편성하면서 시청률이 올랐다. 월화드라마 장기 휴방으로 인한 임시방편이었지만 성과로 돌아왔다. SBS는 기세를 몰아 새 예능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를 8월 중 월·화요일 밤 10시대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따른 시청자의 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방송사가 이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MBC는 최근 외식업 카드 결제 시간대 등을 분석한 결과 “시청자의 저녁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그 시간대 역시 빨라졌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